

# 분양가 상승, 1~3인 가구 늘어... 수도권 소형아파트 '인기'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 동향**  
 수도권 평균분양가 평당 2434만원  
 전년 동월비 15%, 314만원 올라  
 작년 60㎡ 이하 거래량 51% 증가  
 공급량은 2년만에 절반수준 줄어

최근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평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평형 공급량 감소와 1~3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평형 인기는 커질 전망이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2434만41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분양가(2120만2500원) 대비 14.82%(314만16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평당 분양가는 3.3㎡당 2977만9200원에서 3494만7000원으로 17.35%(516만780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시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 흐름에 수도권 일부 단지의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격은 10억원에 준하거나 웃돌았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광명에서 분양한 3개 단지(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센트럴아파트·트리우스광명)의 전용면

적 84㎡는 10억~12억원 선에 공급됐다. 지난해 11월 의왕시에서 분양한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9억 초반대로 책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선 중대형 아파트 대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평면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면적별 전체 청약경쟁률은 60㎡ 이

하 면적이 16.74대 1로, 60~85㎡ 이하(9.69대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형 평수 아파트 매매 거래량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1월~12월) 수도권 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 매매 거래량은 6만7222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4만4429건)보다 51.3%(2만2793건) 증가했다.

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든 것도

수요자들을 몰리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공급량은 ▲2021년 3만4349가구 ▲2022년 2만5777가구 ▲2023년 1만7506가구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년 1~3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59㎡ 이하 평형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세대별 가구는 1~3인만 으뜸세를 보였다. 1인가구는 1월 465만9391가구에서 12월 474만3994가구로 1.82%(8만4603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인가구는 268만1071가구에서 273만9644가구로 2.18%(5만8573가구) 늘었다. 3인가구의 경우 1.01%(209만724가구→211만1878가구)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규모 가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용면적 59㎡ 이하 면적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시공사의 설계 기술의 향상 평준화로 소형평수에서도 널찍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이용자 증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국토부, 3일 자정부터 52시간 진행  
 할인 위한 출발·도착정보 기록 못해  
 이동거리 관계없이 최대 마일리지 줄 듯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 개선 작업이 오는 3일 새벽 0시부터 5일 오전 4시까지 52시간 동안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일 '알뜰교통카드'의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작업시 알뜰교통카드 앱·홈페이지 접속이 안되므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출발·도착 정보를 기록할 수 없다.

대광위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게 이동 거리와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800m 기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캡처.

토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약 10%의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급증한 알뜰교통카드 관련 정보를 원활히 수집·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지

난 2019년 도입 당시 2만1000명이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2년 말 48만7000명, 지난해 말 109만명으로 급증했다. 현재는 약 112만명으로, 오는 5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의로의 전환을 앞두고 증가세가 가파르다.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은 정보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에 장애가 빚어지면서 지난해 초 '먹통'이 됐다가 이틀 만에 복구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앱 접속 속도를 비롯한 편의성을 높이고 K-패스 출시 이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개선 작업을 마친 뒤에도 시스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투자 본격 시행

중기부, 총 400억 규모 자금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투자' 사업을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매칭투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투자대상은 이미 선정된 총 11개의 투자운영사로부터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규로 투자 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운영사에 투자 희망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운영사가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매칭투자 외에도 상인 공동자산을 위한 투자프로그램인 '상권연계형 매칭투

자'도 신규 도입한다.

'상권연계형 매칭투자'는 특정 상권 내의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투자받아 상권에 공동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을 구축할 때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20억 원까지 묶음형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투자운영사와 분기 1회 이상의 투자 IR 대회도 개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신규 투자 유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이 만들어 내는 스톱 브랜드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들을 민간 투자자와 연결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과 창조적 신제조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매칭투자자와 같은 다양한 혁신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선스로 만들고, 이들이 지역 소상공인,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일부터 소진공 공식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HD현대마린솔루션, 오션와이즈 공급계약

선박 탄소배출량 모니터링·예측

HD현대의 해양산업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 탈탄소 솔루션인 '오션와이즈'의 본격 상업화에 나선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1일 포스코와 AI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 솔루션 오션와이즈의 첫 상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션와이즈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 가상공간에 선박 성능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운항 경로 및 기상, 조류 변화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한다. 또 선박의 실제 운항 데이터가 쌓일수록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딥러닝·머신러닝 등 AI 기술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HD현대마린솔루션은 포스코에서 철광석 및 석탄 등 원료 도입을 위해 운용 중인 건화물선에 대해 CII(탄소집약도지수) 등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II 등급 모니터링 기능', '운항 전 CII 등급 시뮬레이션 기능', '최적 항로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관계자는 "글로벌 탑티어 철강사인 포스코와의 계약을 통해 탄소배출량 관리와 저감을 위한 오션와이즈 서비스의 신뢰성을 입증했다"며 "특히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고객층이 기존 선사 중심에서 대형 화주까지 확장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AMD '라이젠8000G 시리즈' AI기능 더해 공식출시

AMD도 AI 프로세서를 내놨다. AMD는 새로운 올인원 데스크탑 프로세서, 라이젠8000G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리즈는 최상위 라인업에 라이젠 AI와 라데온 700M 등 동급 최강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높은 전성비를 제공하고 AI 워크로드 최적화를 통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라이젠 8000G는 AM5 플랫폼을 기반으로 1080p 해상도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과 메모리 오버클럭 기능 AMD 엑스프로, CPU 원터치 오버클럭 기능인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PBO) 등을 제공한다. 외장 그래픽 카드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공급 기업 모집

200여개 기업, 750개 기술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술공급 기업을 모집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200여 개 기술기업과 750여 개의 스마트기술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AI, IoT, VR·AR, 로봇, 키오스크 등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스마트기술은 풀(Pool)로 구성해 올 한 해 동안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게재, 소상공인이 필요한 스마트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오는 2월8일까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진공은 서류검토, 서면평가, 대면(현장)평가 등을 통해 기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